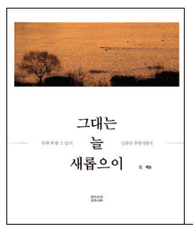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9~9/1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2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3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 / 현천스님	선요가
4	보리수 아래 : 동화로 만나는 부처님 이야기 대보라홈킨슨 / 김미선		불광출판사
5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무진 황경환	현대불교신문
6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7	방거사 어록 시 역주 (선어록총서 3)	강승욱	운주사
8	낡은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9	불교의 체계적 이해	고익진	광륵사
10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책세상

글과 그림이 된 '깨달음'



그대는 늘 새롭으이

글 · 벽봉 / 삽화 · 백화

맑은소리맑은나라 펴냄 / 2만 원



소식

벽봉 지음 / 맑은소리맑은나라 / 1만8천 원

40여 년 선방 수좌 벽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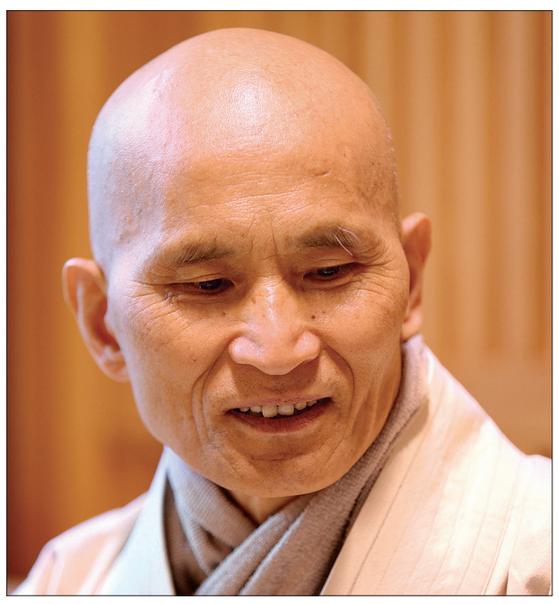
선 수행 지침서, 선서화집 출간

수행으로 얻은 것 글 · 그림으로

實參實修에 의한 수행 지침서

고뇌의 현대인에게 해소법 제시

'윤회' 등 선서화 100여 점 수록



저자 벽봉 스님.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도// 가까운 곳에 / 도가 없다면 / 저 먼 곳에도 / 도가 없으리."

"행복// 이 사바세계에서 / 행복이 없다면 / 저 극락세계에도 / 행복이 없으리."

말이 되고 글이 된 후에는 쉬운 이야기이지만 찾기 전까지는 어디에도 없는 말과 글이다. 찾아나서는 일이 전부인 수행자만이 얻을 수 있는 진리다. 수좌 벽봉 스님이 오랜 수행에서 얻은 것들을 두 권의 책으로 펴냈다. 선 수행 지침서 〈그대는 늘 새롭으이〉와 선서화집 〈소식(消息)〉이다.

수행의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적은 짧은 글과 선적인 삽화로 구성된 〈그대는 늘 새롭으이〉에는 선객의 살림살이가 낱낱이 드러나 있다.

오랜 시간 수좌로 선방을 지킨 수좌에게도 '부처님'은 최상의 존재이다. 책은 제1장 '부처님'에서 무시이래 그 거룩한 존재로부터 시작된 불법이 26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롯한 지침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 고귀한 분, 항상하는 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분, 즐거움이 충만한 분, 행복이 그득한 분, 중생이 원하면 모든 걸 통째로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한다.

제2장과 3장, 4장 '깨달음의 노래'에서는 번뇌, 윤회, 스승, 만행, 공양, 해탈, 극락세계, 정(定)과 혜(慧), 허공, 고향 등 수행의 여정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생각을 핵심 주제어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겪어봄직한 화두로서 승가에는 물론 재가불자들에게도 수행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한다. 특히 12편으로 정리된 허공과 고향을 시인 문태준은 서평을 통해 "벽봉 스님의 시는 구도의 노래이다. 또한 시상의 오고감이 자유롭다. 스님께서 쓰신 한 편의 시는 흐르는 물소리요, 갇히지 않는 바람이다. 시를 읽고 나면 마음에 연꽃 한 송이가 핀 것 같다. 그리하여 얽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한다. 실로 '법의 고향'에 들어서게 한다. 더불어 '허공' 연작시는 선기가 돌올하고 시구가 활구 같다. 감흥에 크게 움직일 것이다."고 했다.

제5장 '수행에 들어가는 장'에서는 수행지침서라는 언어가 아깝지 않을 수행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지면의 색상을 달리하여 부록 형태로 꾸려진 제5장은 '수행의 방법',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 '점차적인 수행(명상과 지혜)'으로 구성됐다.



벽봉 스님 作, 정진

'점차적인 수행'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절 명상, 좌선 명상, 조깅 명상, 화에 대한 명상, 안정을 찾는 명상으로 안내한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두려움, 무관심, 열등감, 시기 질투, 타인을 무시하는 습관, 이중적 마음으로 힘들 때 등 고뇌의 현대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해소법까지 제시하고 있어 실참실수(實參實修)에 의한 지침서라는 데 충분히 공감하게 된다.

책의 마지막 귀결은 '간화선'이다. 간화선이야말로 수행의 핵심을 제시하는 수행법임을 강조한다.

이번 '선 수행 지침서'에는 각 수행 주제에 맞는 백화 화백의 삽화가 들어 있다. 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삽화는 또 하나의 매력이다. 글과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 삽화들은 글과는 다른 과정을 통해 진리에 이르게 한다.

선서화집 〈소식〉에서는 승가의 결제와 해제, 그리고 입선과 방선의 간극을 갖가지 그림과 활구로 풀어 수행자와 재가불자들에게 일침을 준다.

총 108쪽 분량으로 행복한 사람, 달에서 본 지구, 취모리 검, 방하착, 본래무일물, 윤회와 열반, 우주, 정진 등 100여 편의 선서화를 담았다.

거친 달 표면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푸른 별 지구를 검은 허공 속에서 드러나게 펼쳐놓은 그림 '달에서 본 지구'와 총천연색의 파도와 배를 그려 넣은 '정진'은 이번 선서화에서 특히 눈에 띈다.

영일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그가 빚어낸 이번 선서화는 산철마다 결제철의 공부를 옮겨 정리한 '점검'의 기록인 셈이다. 벽봉 수좌는 언제나 주(主)가 수행이며, 부(副) 역시 수행인 철저한 수행자로서 방편이 아닌 친절한 부연(敷衍)을 이번 선서화를 통해 설명해 놓은 참고서라고 보면 옳을 것이다"고 밝혔다.

벽봉 스님은 선서화집 〈소식〉을 통해 '허공에 던지는 도담(道談)'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히며 이는 "결제철의 수행을 통해 얻은 것들을 산철이면 글과 그림으로 풀어내어 허공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더는 수행의 결실이 있다면 모두 공부인들을 위해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으며 그 보다 더 비중을 둔 것이라면 '내 점검을 해야 했다'"고 작품의 취지와 의미을 밝혔다.

벽봉 스님은 9월 22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그대는 늘 새롭으이〉와 〈소식〉의 출판기념회를 연다.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나무갤러리에서 출판기념회를 겸한 전시도 연다.

저자 벽봉 스님은 40여 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선방 수좌로 살아왔으면서도 넘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수좌라고 불린다.

스님은 이번 단행본을 통해 "그간 부처님 명호를 부르며 축낸 밥값을 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산철마다 조금씩 정리를 했다. 부족하나마 후배스님들과 수행을 지어가고자 하는 재가수행자들에게 '조금 먼저 이 길을 만난' 수행자가 안내하는 안내서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다. 스승님과 선배, 도반스님들께는 넘치지 않을 내용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러기에 이 책이 조심스럽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며 출간 취지를 밝혔다.

벽봉 스님은 쌍계사 금당선원 선원장을 역임했으며,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대흥사, 직지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현재 봉선사 보림선원에서 참선 정진 중이다.

제2기 (2020년)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

접수 : 2020. 10. 5 ~ 10. 30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해 불교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제2기(2020년) 대원불교 학술· 콘텐츠 공모를 실시합니다.

○ 지원 자격 :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분야

1) 불교 학술 부문 - 저서

- 번역서(①, ② 중 선택) : ① 진흥원 제시 도서(www.kbpf.org에서 다운로드), ② 본인 선정 도서

2) 불교 콘텐츠 부문 - 만화 · 동화 · 소설 · 찬불가 작사/작곡 · 수행 프로그램 개발

○ 공모 주제 :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

○ 지원금

① 불교 학술 부문 - 저서 : 500만원 ~ 1,500만원, 번역서 : 300만원 ~ 1,200만원(분량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② 불교 콘텐츠 부문 - 만화 · 동화 · 소설 · 찬불가 작사/작곡 · 수행 프로그램 개발 : 300만원 ~ 1,500만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제출 서류

① 지원서 1부(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양식 다운로드)

② 간단 이력서 1부(자유 양식)

③ 제안서(A4 1p 분량, 자유 양식)

④ 불교 학술 부문 중, 번역서 지원자는 추가로 해당 도서의 서지상 정보, 목차, 샘플 번역 3쪽을 제출해야 하며, 번역 분량을 추정(200자 원고지 기준)해서 제출해야 함(* 지원자가 해당 도서의 판권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최종 선정된 경우라도 판권 취득을 못할 경우 선정을 취소함).

※ 1차(예비 심사) 통과자는 제안서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1차 통과자에게 개별 통보함).

2) 심사 절차

1차(제안서 심사) → 2차(1차 통과자, 세부 계획서 심사) → 3차(종합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 지원금 지급)

※ 선정자는 연구비를 수령한 후 2년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결과물이 본원 출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경우, 대한불교진흥원이 지정한 출판사에서 총서로 발간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3) 접수

기간 : 2020년 10월 5일(월) ~ 10월 30일(금)까지

방법 : 이메일(kbpf2606@daum.net)

문의 전화 : 02-719-2606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0년 11월 중(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대형사찰 시설비의 1/10 정도

의 시설비이지만 대형사찰 법당 현장서 본 견본과 염불소리 비교시 장난감!

내 귀에 내 염불이 힘들면 질병! 내 귀에 내 염불의 신명은 건강!

스님 세계에 깊게 베인 속단의 습관을 버리시고

오직! 소리 구경 조건으로만 신청을 하시면 반드시! 그 부근을 지날 때에만 방문하여 초간단 견본으로 귀법당 시설과 소리비교시 앰프다루기 1초, 특히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장엄한 염불소리 반드시 확인.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